

Week Ahead Snapshot

다음 주 주목할 금융시장 이슈(11/24~28)

(전략/퀀트) 유명간

myounggan.yoo@miraeeasset.com

(선진국 전략) 김성근

sungkeun.kim@miraeeasset.com

(채권) 민지희

jihee.min.a@miraeeasset.com

[경제/채권]

-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미 10년 금리는 4.1%를 중심으로 등락. 9월 고용 지표에서 일자리 증가세는 예상치 상회했지만 실업률이 상승하며 고용 부진 우려 지속
- 다음 주 9월 미국 소매판매(11/25), 9월 PPI(11/25) 발표 예정. PCE 인플레이션 발표 일정 미공개. 10~11월 고용지표 발표 지연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짐. 올해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명시적으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위원은 5명 정도로 파악됨. 12월 FOMC(12/9~10) 전까지 증시 조정 폭과 실업수당 지표 확인하며 통화정책 기대 조정 국면 예상. 미 10년 금리 4.1% 중심 횡보 전망
- 국내 채권시장, 11월 금통위(11/27) 예정. 금리 동결 및 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1.9% YoY로 상향(이전: +1.6%) 예상됨.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로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옵션 열어두겠지만 높아진 성장률 전망과 환율 변동성 고려하면 금리 하락 여력 제한적. 연말~내년 초 듀레이션 중립 의견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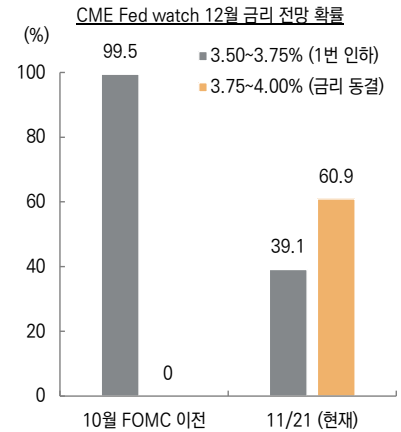
[글로벌 주식]

- 이번 주 S&P500(-2.9%)은 예상치를 상회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 AI 수익성 우려가 이어지고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도 확인된 결과
- AI 수익성 우려로 인한 변동성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엔비디아 실적으로 높은 데이터센터 수요는 확인됐지만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기업 관점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제한적. 변동성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환경 개선이 필요. 관련해 연준의 금리 스탠스와 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스프레드 변화에 주목. 빅테크 기업들이 Capex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기 때문. 미국 테크 기업들의 투자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오라클을 필두로 상승세를 유지 중. AI 서버 기업 Dell(11/25) 실적 발표에서 AI 서버에 대한 수요 확인도 중요
- 한편 Best Buy(11/25)를 비롯한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며 가성비가 가장 높은 월마트로 물리는 흐름 관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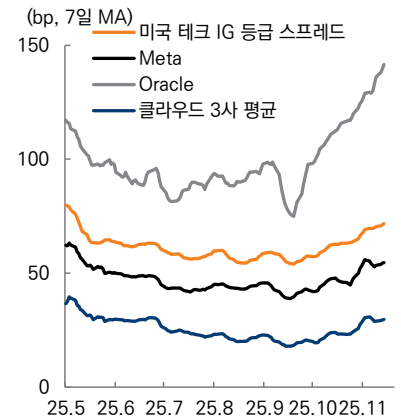
[국내 주식]

- AI 수익성 논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축소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주가 하락 폭이 컸음. 중국, 일본 갈등에 따라 반사 수혜 가능한 호텔/레저, 화장품, 유통 업종과 기술 수출 모멘텀 기대되는 바이오의 주가가 양호
- 이번 증시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낮아짐. 코스피 3,880pt 기준 12MF PER 10.2배, PBR(TTM) 1.3배 수준. 내년 실적 증가율(26F OP 증가율: +38%)을 감안하면 추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반도체, ITHW, 2차전지 쏠림 지표(z-score, 11/20)는 각각 2.14, 1.7, 1.7으로 과도. 이번 조정으로 쏠림 완화 기대
- 바이오(코스닥), 금융, 지주에 관심 지속(11월 월보 참고). 올해 하반기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바이오 비중 ↑)이 상대적으로 유리. 4분기는 바이오테크 달의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 또한, 3차 상법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이슈에 주목할 필요. 금융, 지주 업종 및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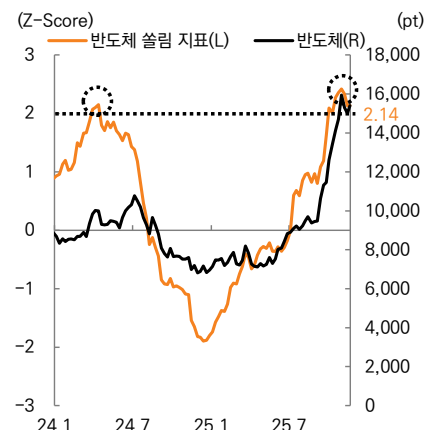
12월 FOMC 동결 확률 우위



테크 기업들의 IG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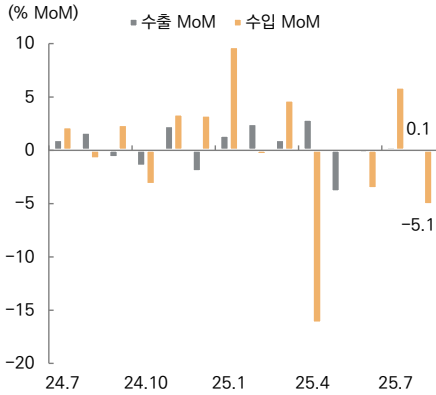


반도체 쏠림 점수(Z-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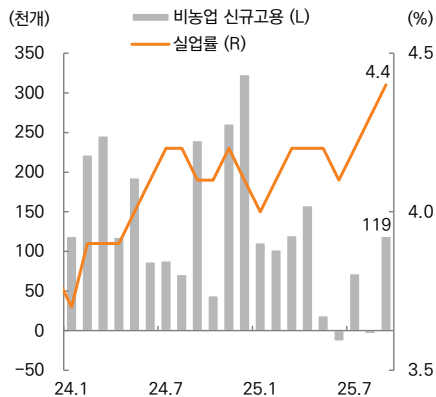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리뷰

8월 미국 수출입 (11/20 발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8월 미국 비농업고용, 실업률 (11/20 발표)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8월 미국 수입 감소, 무역수지 개선

- 미국 수입은 7월의 +5.9% MoM에서 8월에 -5.1%로 감소 전환. 수출은 7월의 +0.3% MoM 대비 소폭 둔화한 +0.1% MoM 기록. 이에 8월 미국 무역수지는 7월의 -781.5억달러에서 -595.5억달러로 대폭 감소
-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 모두 7월 대비 8월 수입이 감소. 특히, 상위 3개국 중 멕시코는 +1.1%에서 -0.5%, 캐나다는 +8.3%에서 -8.5%, 중국은 +40.0%에서 -5.1%로 감소. 캐나다와 중국산 수입의 경우 전년비 기준으로 각각 -10.7%, -36.5% 감소
- 수입 항목별로는, 기계류 수입이 7월의 +6.9% MoM 대비 -7.0%로 감소했고, 화학제품은 -0.8%에서 -9.0%로 감소폭 확대. 상위 10개 항목 중 항공기 및 조선의 수입만 7월의 -3.6% 대비 +0.1%로 소폭 증가

9월 비농업고용과 실업률 모두 예상치 상회

- 9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1.9만 건으로, 예상치(5.3만) 상회했고, 8월의 수정치(-0.4만) 대비 크게 상승. 단, 9월 실업률은 4.4%로, 예상치(4.3%) 상회했고, 8월(4.3%) 대비 상승
- 민간 부문의 9월 신규고용은 9.7만건으로, 8월(1.8만) 대비 상승했고, 정부 부문의 9월 신규고용도 2.2만으로, 8월의 -2.2만에서 상승. 업종별로는 건설(-1.4만 → +1.9만), 금융(-1.5만 → +0.5만)이 8월 대비 상승 전환. 교육 및 헬스서비스(+4.3만 → +5.9만), 레저 및 여가활동(+3.2만 → +4.7만) 등 주요 서비스업종은 고용 증가 폭 확대
- 실업률의 유형별로는 정규직 실업률이 8월의 4.3% 대비 4.4%로 상승. 단, 동 기간 비정규직 실업률은 4.7%에서 4.4%로 감소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Date	Region	Economic indicator/event	Survey	Prior
11/25	한국	11월 소비자심리지수	★★★★★	109.8pt
	미국	9월 소매판매 MoM	★★★★★	0.6%
	미국	9월 핵심 소매판매 MoM (자동차 및 주유소 제외)	★★★★	-
	미국	9월 헤드라인 PPI MoM	★★★★★	0.1%
	미국	9월 코어 PPI MoM (식품 및 에너지 제외)	★★★★	0.1%
	미국	9월 헤드라인 PPI YoY	★★★★	2.6%
	미국	9월 코어 PPI YoY (식품 및 에너지 제외)	★★★★	2.8%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	93.3pt / 94.6pt
11/26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	22.0만
	미국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	★★★★	197.4만
	미국	9월 내구재 주문 MoM (잠정)	★★★★★	2.9%
	미국	9월 운송제외 내구재 주문 MoM (잠정)	★★★★	0.3%
	미국	연준 베이지북 발표	★★	-
11/27	한국	11월 금통위	★★★★★	2.50%
11/28	일본	10월 실업률	★★★★★	2.5%
	일본	10월 광공업생산 MoM (잠정)	★★★★★	-0.6%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일부 지표들은 미국 연방정부 섣다른 여파에 발표 지연 가능성 있음.

미국 연준인사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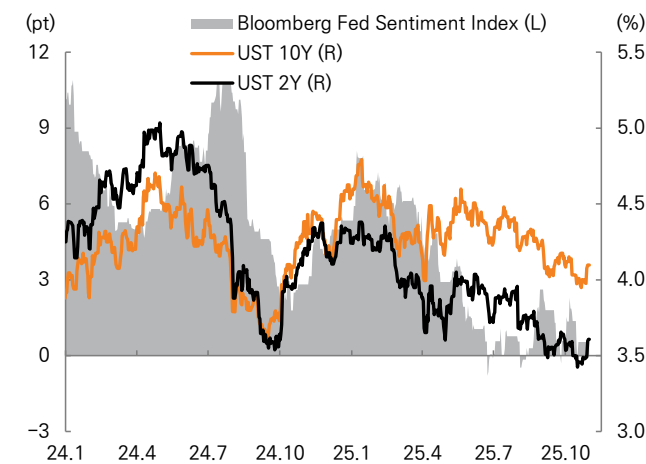
연준 인사 주요 발언 내용

발언 날짜	위원	이사	투표권	성향	내용
11/17	제퍼슨	O	O	0	최근 몇 달동안 인플레이에 대한 상승 위험 증가에 비해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위험 균형이 변화함. 12월 인하 옵션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 2% 인플레이 목표로의 진전은 관세 영향을 반영하여 정체된 것으로 파악됨
11/17	월러	O	O	-2	인플레이는 목표에 근접해 있고, 노동시장이 약하다는 근거가 보이는 만큼, 12월 회의에서 25bp의 인하를 지지함
11/18	바킨	X	X	+1	연준의 현 상황은 딱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음. 12월 회의 전까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11/20	바	O	O	0	인플레이 목표치가 2%인데 여전히 3%대에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고,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 고용시장은 약간 냉각 중
11/20	쿡	O	O	-1	현재로서는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봄. 사모대출 시장은 기업들과 더욱 복잡하고 상호연결성이 높아진 관계를 가진 만큼, 사모대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퍼질 수 있음
11/20	해맥	X	X	+2	고용시장의 위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고인플레이 상황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 뜻은, 다음 경기 하락 사이클이 기존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이에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11/20	굴스비	X	O	0	인플레이를 경제 중. 9월 고용보고서는 꽤나 안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줌. 여전히 인플레이의 상승 전환이 일시적이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 까지 너무 많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심스럽게 생각
11/20	폴슨	X	X	-1	실업률은 대체로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함. 각각의 금리 인하는 경제활동을 제약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로 금방 바뀔 수 있음. 따라서 12월 FOMC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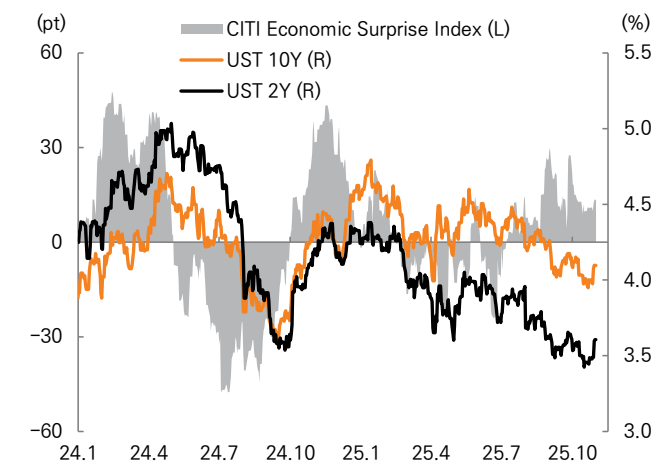
주: 성향은 -2(도비쉬) ~ +2(호퀴시)로 분류 /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모델 연준발언 분석 및 시장금리 추이

경기서프라이즈 지수 및 시장금리 추이



주: (+) 호퀴시, (-) 도비쉬,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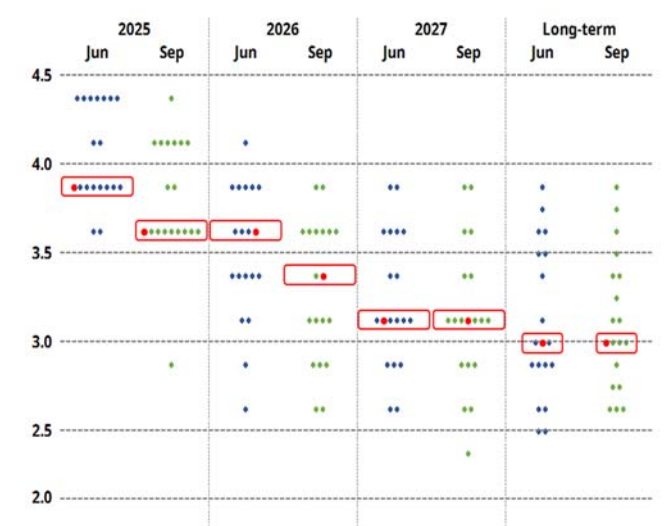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블룸버그 평가 연준 인사들의 통화정책 성향

FOMC 점도표 변화

Group	Region/role	Name	Vote	Sep. 2024	Dec. 2024	Feb. 2025	Jun. 2025	Jul. 2025	Sep. 2025
Board of Governors	Chair	Powell	O	0	0	0	-1	0	0
	VC of Board	Jefferson	O	0	0	0	-1	0	0
	VC for Supervision	Bowman	O	+2	+2	+2	0	-2	-2
		Barr	O	0	0	0	0	0	0
		Waller	O	+1	+1	+1	-2	-2	-2
		Cook	O	-2	-2	-2	-1	-1	-1
New York		Miran	O	-	-	-	-	-	-2
	VC of FOMC	Williams	O	0	-1	-1	0	1	-1
Group 1	Boston	Collins	O	0	+1	+1	0	0	0
	Philadelphia	Paulson	X	-	-	-	-	0	-1
	Richmond	Barkin	X	+1	+1	+1	0	+1	+1
Group 2	Cleveland	Hammack	X	+1	+1	+1	+2	+2	+2
	Chicago	Goolsbee	O	-2	-2	-2	-1	-1	0
Group 3	St. Louis	Musalem	O	0	+1	+1	+1	+1	+1
	Dallas	Logan	X	+1	+1	+1	+2	+1	+1
	Atlanta	Bostic	X	0	0	0	0	0	0
Group 4	Kansas City	Schmidt	O	+1	+1	+1	+1	+1	+2
	Minneapolis	Kashkari	X	+2	+2	+2	+2	0	0
	San Francisco	Daly	X	-1	0	0	-1	-1	-1
(-) = dovish; (+) = hawkish				0	+1	0	-2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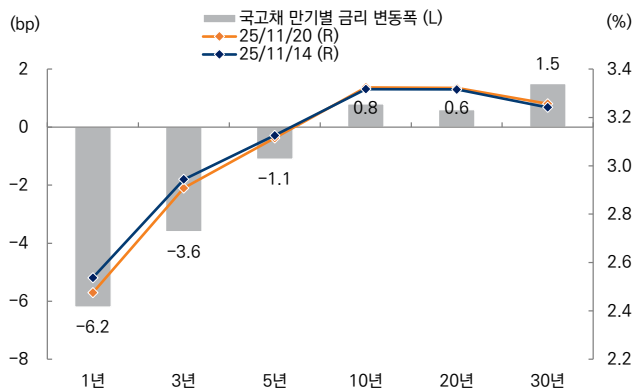
주1: 주황색은 투표권, 주2: 성향은 -2(도비쉬) ~ +2(호퀴시)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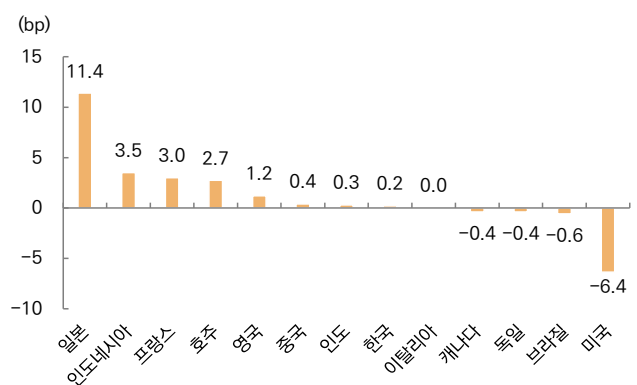
자료: Fe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국 금리 및 원자재 가격 동향

주간 국고채 커브 변화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주간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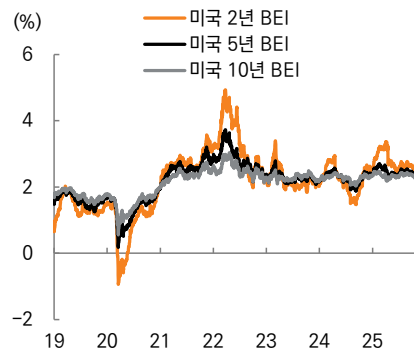


주: 11/14(금) ~ 11/20(목) 증가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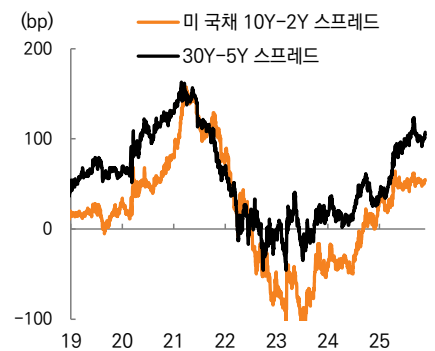
선진국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만기별 B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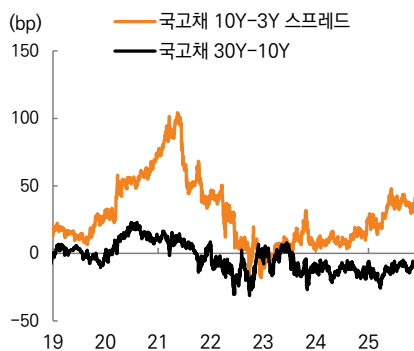
미 국채 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국고채 3, 5,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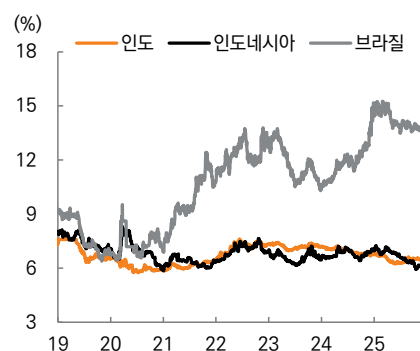
국고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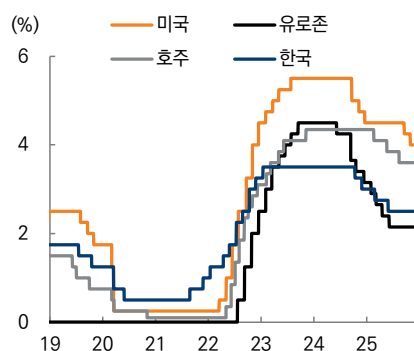
한국 회사채(AA-) 금리 스프레드



신흥국 국채 10년물 금리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원유 및 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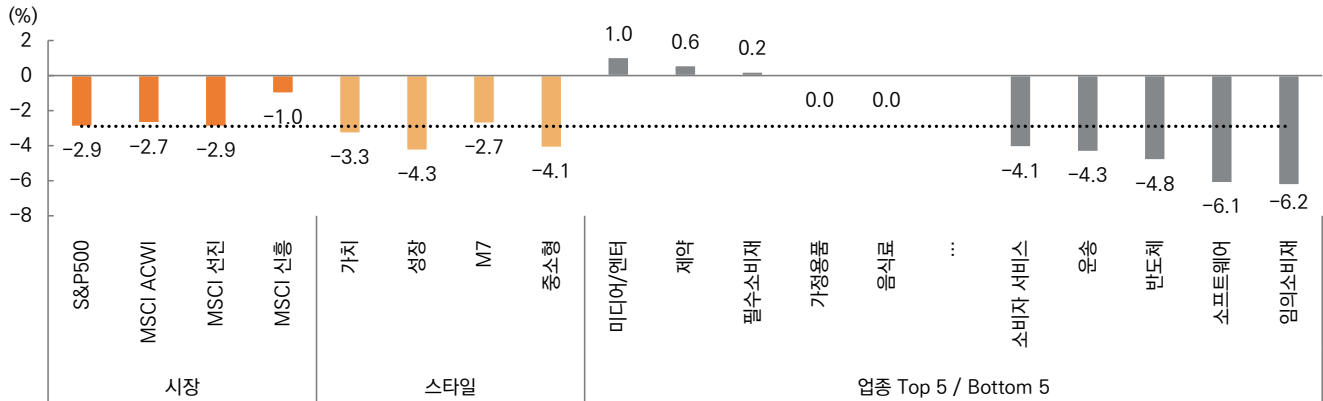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시장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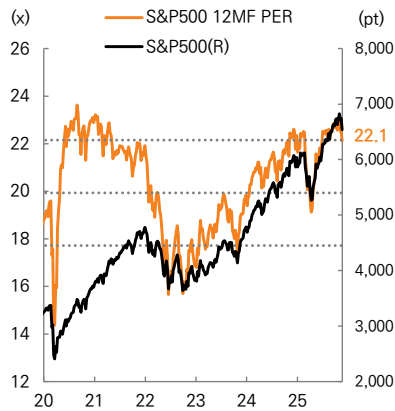
-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 마감.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AI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영향
- 대부분의 업종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4.8%), 소프트웨어(-6.1%)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 미디어, 제약 등은 선방
- 투자심리도 위축되며 S&P500 RSI 34.9로 과매도(30) 구간에 근접. M7 상대강도도 11월 중 하락세 유지
- 중국(-2.9%) 하락했으나 한국(+0.1%), 인도(+0.8%)가 상승하며 신흥국(-1.0%)이 선진국(-2.9%)을 아웃퍼폼

S&P500 시장/스타일/업종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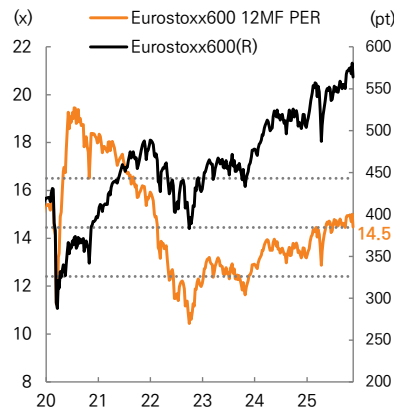


주: 11/14(금)~11/20(목)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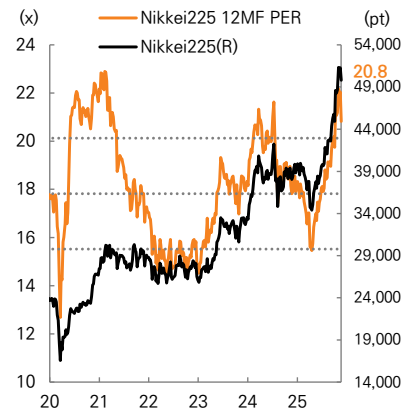
S&P500 12MF PER



Eurostoxx600 12MF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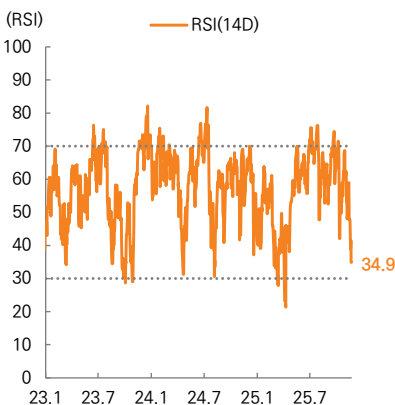


Nikkei225 12MF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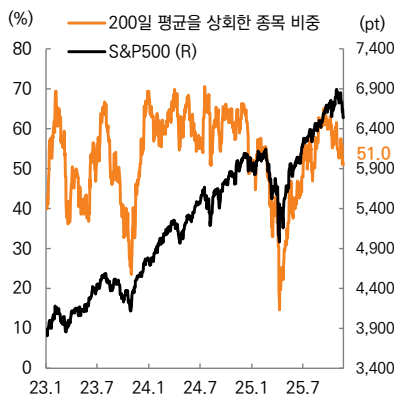


주: 점선은 밸류에이션의 19년 이후 평균, ±1표준편차 수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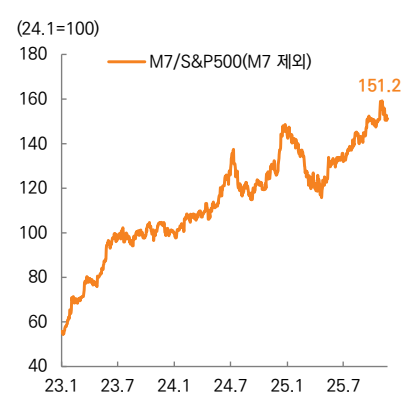
S&P500 RSI(14D)



200일 평균을 상회한 종목 비중



S&P500 M7 상대 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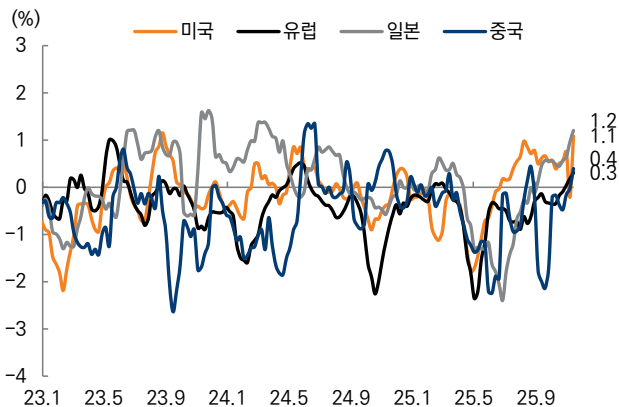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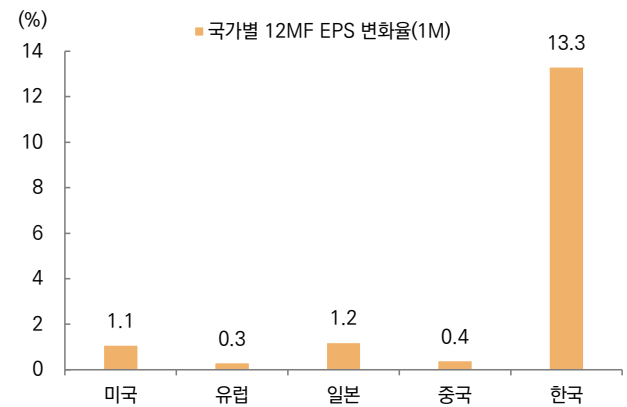
글로벌 이익모멘텀

- 국가별 12MF EPS는 미국(+1.1%), 유럽(+0.3%), 일본(+1.2%), 중국(+0.4%) 모두 상향 조정
- S&P500의 4Q25 EPS는 3개월 전 대비 -0.1% 하향 조정된 반면, 2025년 EPS는 +0.9%로 모두 상향 조정
- 4Q25 EPS 상향 조정폭이 큰 업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에너지. 하향 조정폭은 자동차, 소재, 음식료 순으로 컸음
- 2025년 EPS 상향 조정폭이 큰 업종은 운송, 자유소비재, 보험. 하향 조정폭은 미디어엔터, 소재 순으로 컸음

국가별 12MF EPS 변화율(1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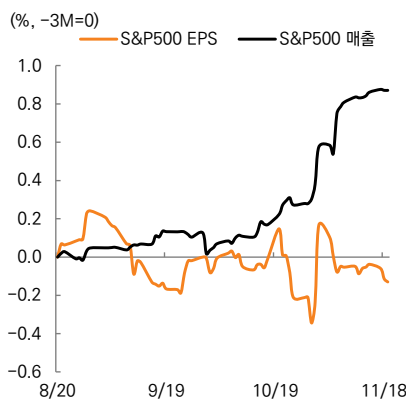


국가별 12MF EPS 변화율(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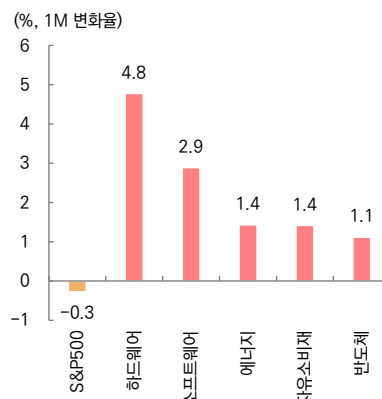


자료: MSCI, Refinitiv,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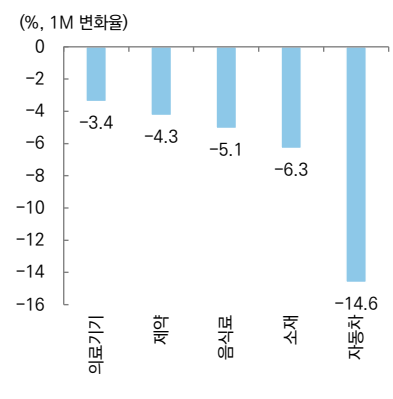
S&P500 4Q25 실적 컨센서스



4Q25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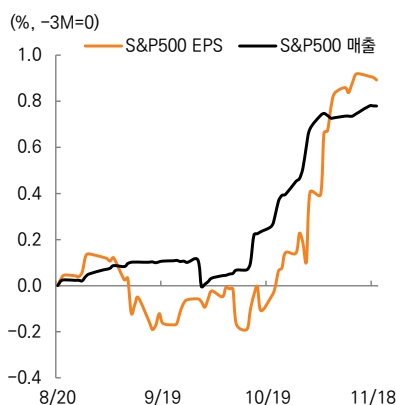


4Q25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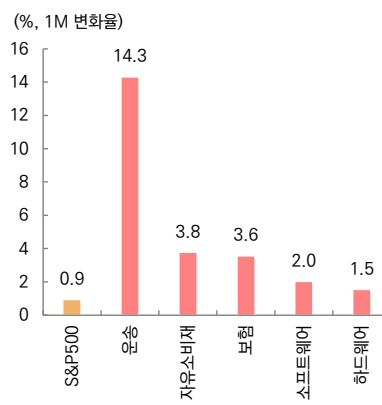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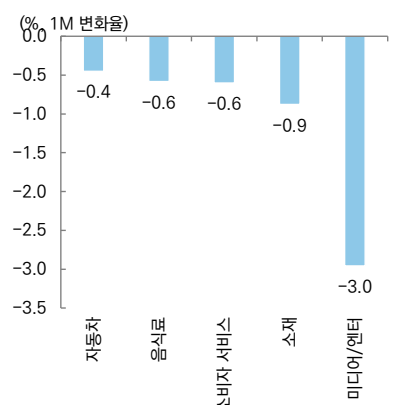
S&P500 2025년 실적 컨센서스



2025년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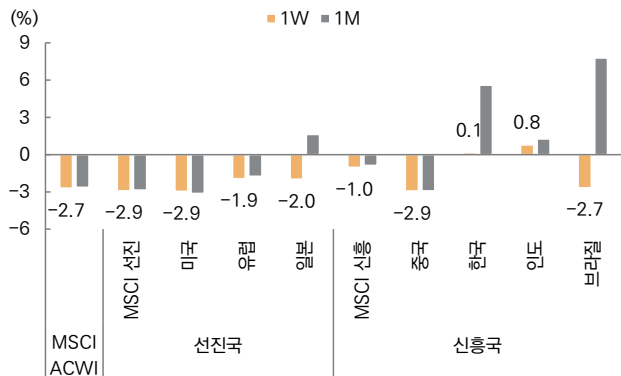
2025년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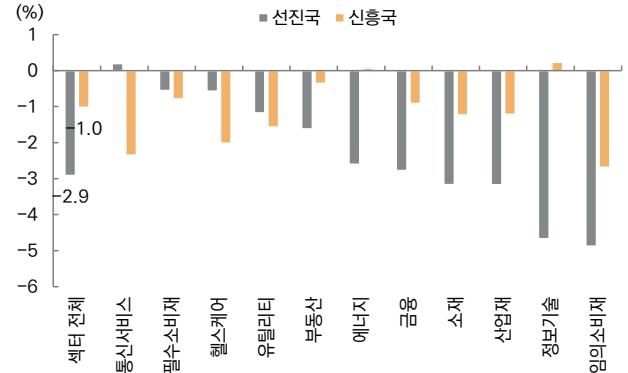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국 증시 및 환율 동향

글로벌 주요국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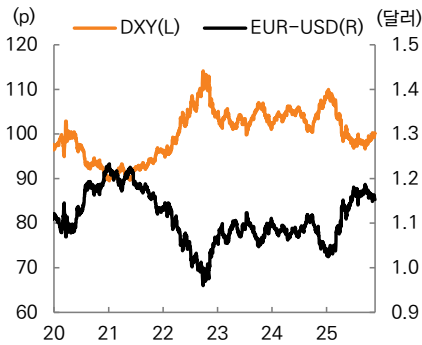


MSCI ACWI GICS 섹터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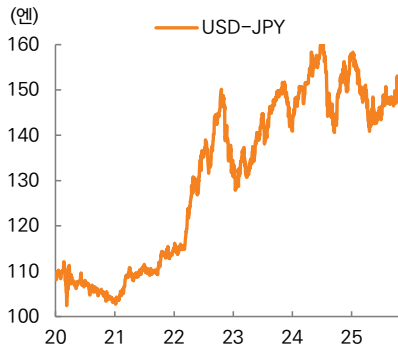


주: 11/14(금)~11/20(목) 종가 기준 / 자료: Bloomberg,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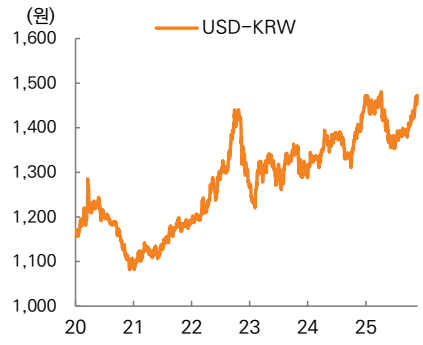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 유로 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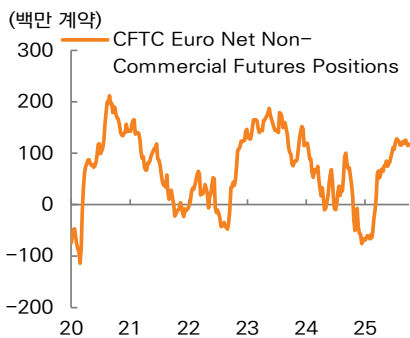
달러-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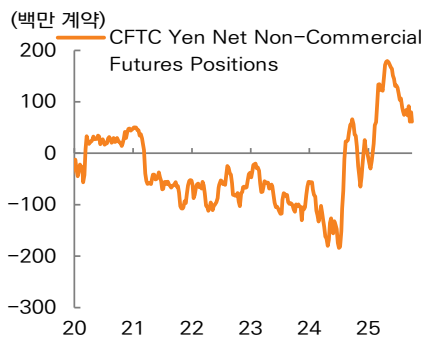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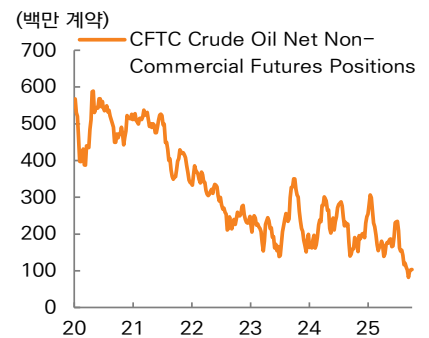
유로화 투기 선물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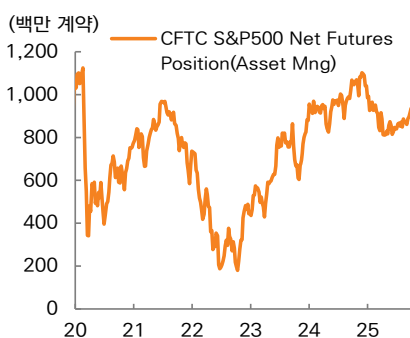
엔화 투기 선물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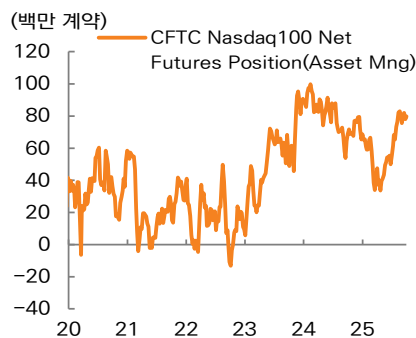
원유 투기 선물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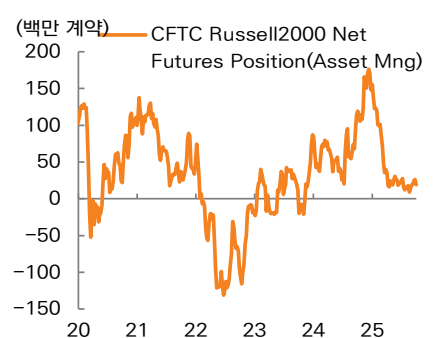
S&P500 자산운용 투기 포지션



Nasdaq 100 자산운용 투기 포지션



Russell 2000 자산운용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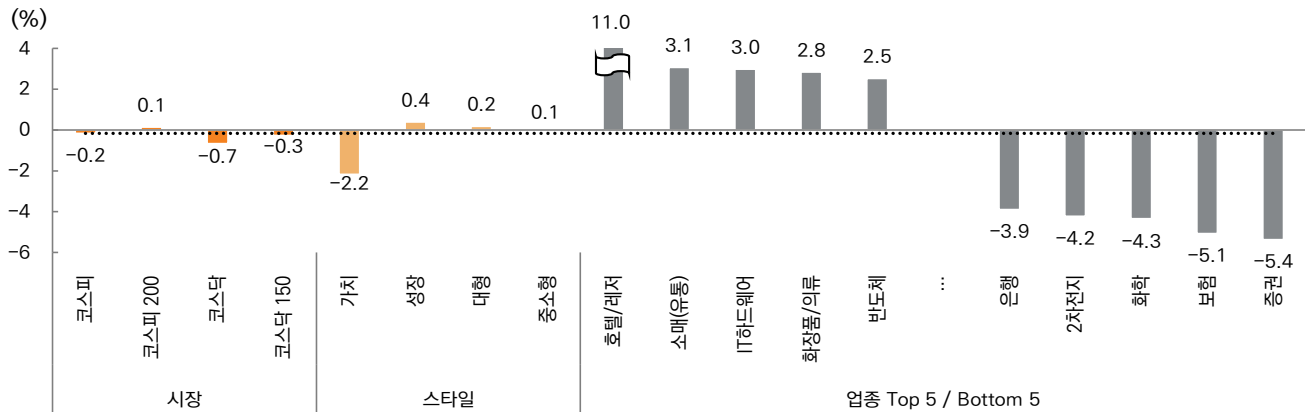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식시장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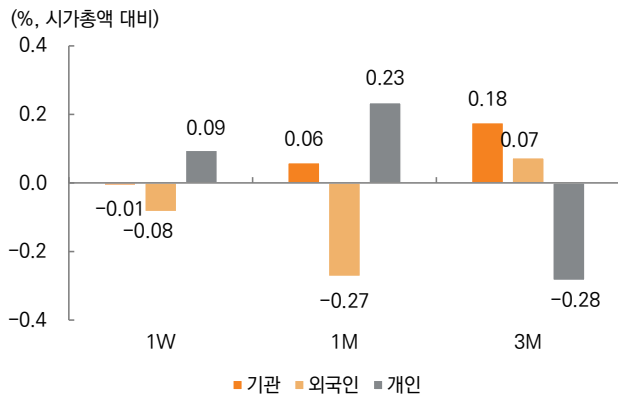
-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0.2%, -0.7% 변동. 가치주 약세.
- 업종별로는 호텔/레저, 소매(유통), IT하드웨어는 상승했고, 증권, 보험, 화학 업종의 하락폭이 컸음
- 외국인은 한주간 소매(유통), 호텔/레저, 화장품/의류 업종 순매수, 미디어, 반도체, 증권 업종 순매도 기록
- 기관은 한주간 호텔/레저, 소매(유통), 화장품/의류 업종 순매수, 디스플레이, 기계, 소프트웨어 업종 순매도 기록

한국 시장/스타일/업종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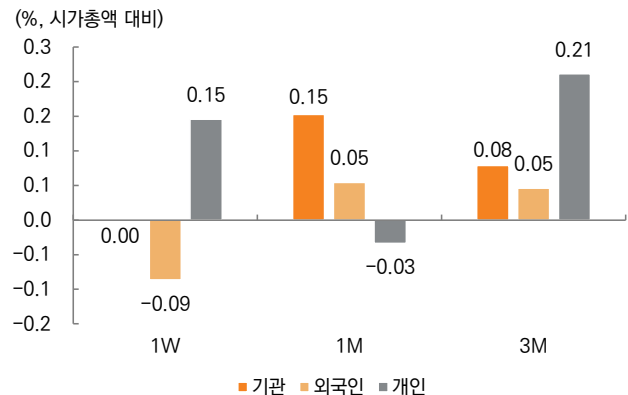


주: 11/14(금) ~11/20(목)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KOSPI 투자주체별 주간 누적 순매수강도



KOSDAQ 투자주체별 주간 누적 순매수강도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관 주간 순매수강도 상/하위 업종 리스트			
상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순매수강도
1	호텔/레저	1,001	0.74
2	소매(유통)	802	0.39
3	화장품/의류	1,511	0.21
4	필수소비재	1,173	0.18
5	은행	2,212	0.12
하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순매수강도
1	디스플레이	-270	-0.17
2	기계	-2,842	-0.14
3	소프트웨어	-2,217	-0.14
4	증권	-853	-0.11
5	2차전자	-1,601	-0.09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주간 순매수강도 상/하위 업종 리스트			
상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순매수강도
1	소매(유통)	605	0.29
2	호텔/레저	286	0.21
3	화장품/의류	1,220	0.17
4	필수소비재	1,048	0.16
5	조선	1,568	0.09
하위	업종명	순매수대금	순매수강도
1	미디어	-1,440	-0.40
2	반도체	-19,450	-0.18
3	증권	-1,246	-0.16
4	은행	-2,972	-0.16
5	기계	-2,159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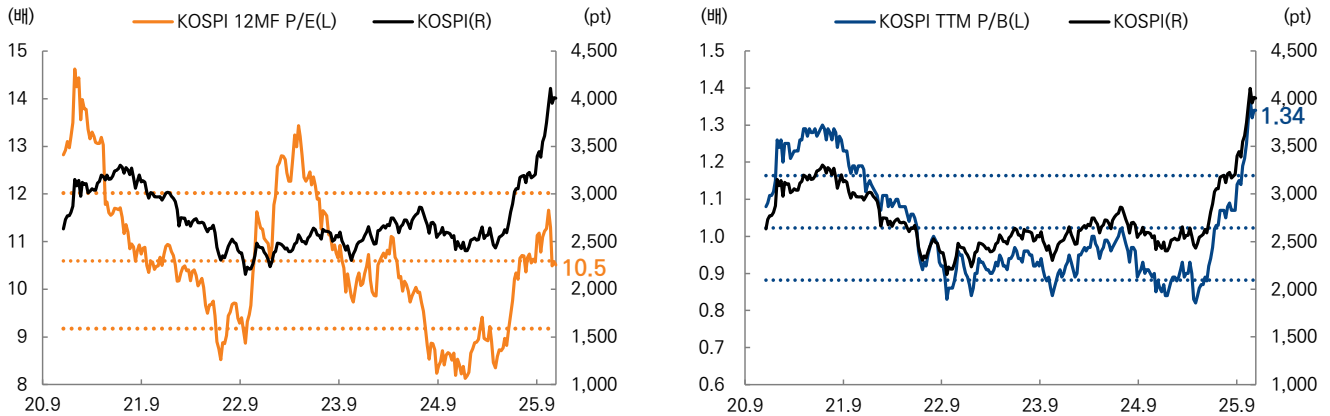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밸류에이션 및 이익 모멘텀

- 코스피 12MF P/E는 10.5배(-0.06 표준편차), TTM P/B 1.34배(+2.25 표준편차) 수준
- 국내기업 합산 4Q25F, 2025F 영업이익은 최근 1개월간 각각 +1.6%, +1.1% 조정
- 4Q25F 비철금속, 반도체, IT하드웨어 업종은 상향 조정. 화학, 철강, 통신서비스 업종은 하향 조정
- 2025F 유틸리티, 에너지, 증권 업종은 상향 조정. 2차전지, 화학, 미디어 업종은 하향 조정

KOSPI 12MF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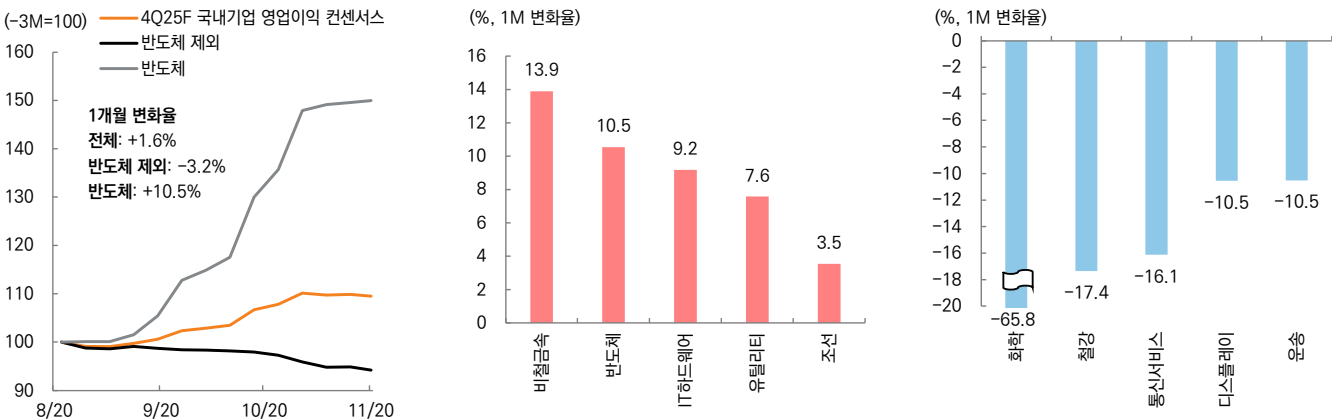
KOSPI TTM PBR



4Q25F 영업이익 컨센서스

4Q25F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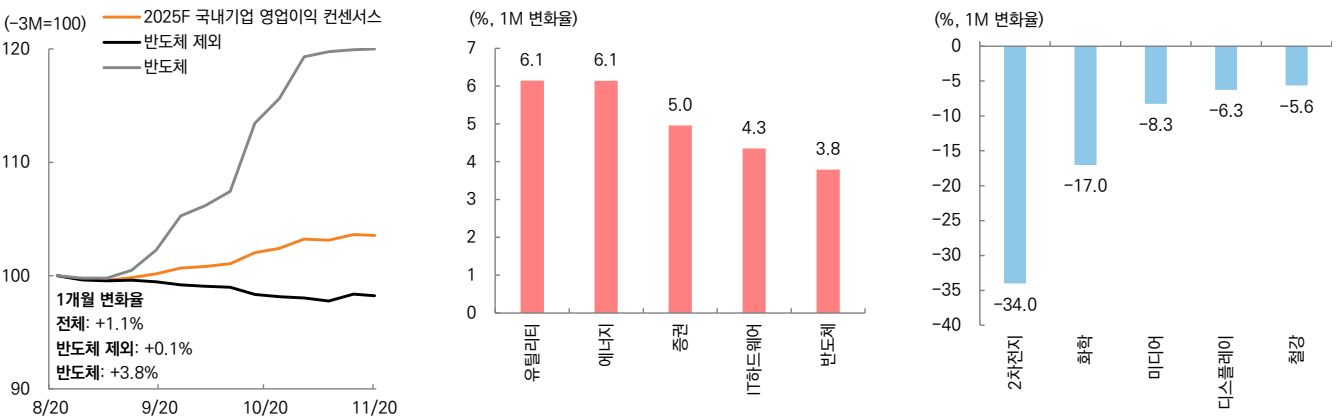
4Q25F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20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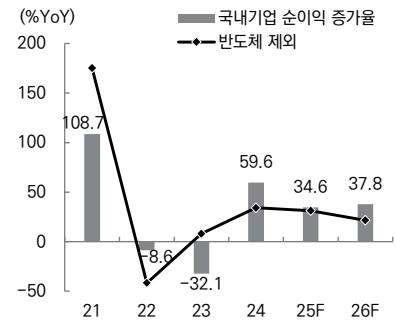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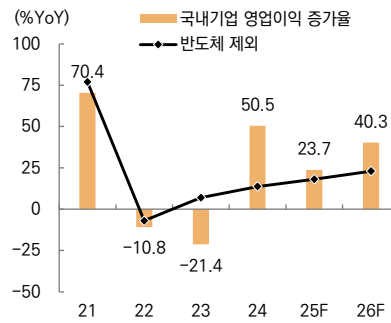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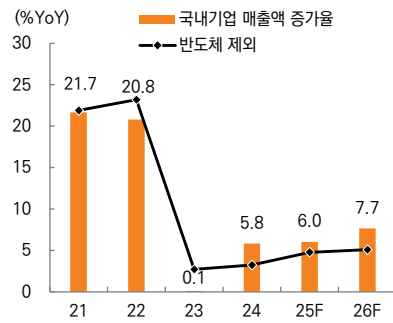
2025년 이익모멘텀 상위 업종

2025년 이익모멘텀 하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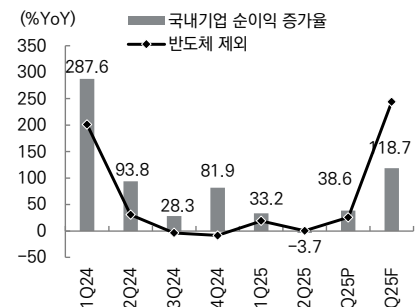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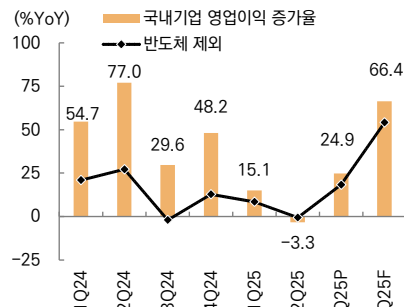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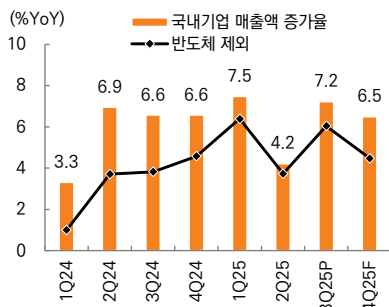


한국 실적 추정 현황

국내기업 연간 실적 증가율



국내기업 분기별 실적 증가율



자료: WISEf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구분	주가 상승률			3Q25F 증가율			2025F 증가율			2025F	2025F
	1W	1M	3M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R	PBR
에너지	-0.2	11.0	27.2	-0.6	113.6	흑전	1.1	26.5	흑전	28.1	0.8
화학	-4.3	6.7	25.8	-3.0	흑전	적지	-3.5	흑전	적지	-107.1	0.9
비철금속	-1.2	-8.1	18.2	26.2	184.7	흑전	26.0	37.7	144.2	24.3	2.3
철강	1.0	5.0	3.9	2.0	흑전	흑전	-2.8	8.8	3.4	22.2	0.4
건설/건축	-0.7	-0.9	-2.2	-3.7	흑전	흑전	-7.0	128.9	63.7	9.1	0.6
기계	-1.0	4.3	40.2	9.8	51.2	169.3	9.8	25.3	47.1	40.5	4.3
조선	-0.6	7.4	24.4	8.7	119.2	24.9	14.9	185.5	120.4	27.2	4.8
상사/자본재	-0.2	4.3	30.4	12.1	39.2	11.1	12.9	43.0	30.3	14.1	1.5
운송	-1.0	-3.2	-11.3	3.7	-38.4	42.5	6.7	-35.5	-22.3	9.3	0.7
자동차	-2.6	1.6	10.1	8.1	-3.2	13.8	9.8	-13.0	-11.2	5.8	0.6
화장품/의류	2.8	0.5	-3.1	5.3	38.8	101.5	6.4	12.3	-4.8	14.9	1.4
호텔/레저	11.0	1.3	-1.3	17.0	84.4	0.5	5.6	21.3	-3.0	17.0	1.3
미디어	-1.2	-3.4	-11.4	-1.2	35.2	흑전	6.4	27.1	흑전	26.5	1.9
소매(유통)	3.1	9.0	7.5	3.6	135.1	흑전	1.8	38.0	흑전	15.3	0.4
필수소비재	1.1	2.0	4.3	3.9	11.7	47.4	4.1	4.8	15.4	13.8	1.3
건강관리	0.2	14.5	22.6	17.8	84.3	22.7	17.7	66.5	46.4	45.1	3.9
은행	-3.9	2.1	8.1	0.0	25.5	26.7		2.2	11.5	7.1	0.6
증권	-5.4	-5.8	13.4	0.0	53.8	55.6		25.6	30.9	7.2	1.1
보험	-5.1	-2.1	5.8	0.0	73.8	78.0		-4.5	-8.4	8.6	0.7
소프트웨어	-2.0	-2.1	-0.1	9.2	41.0	39.1	6.2	20.9	22.6	20.7	1.6
IT하드웨어	3.0	9.6	32.9	11.9	120.5		4.2	15.5	-9.7	35.1	2.0
반도체	2.5	7.1	64.7	19.1	92.3	56.5	13.8	41.1	39.8	13.8	2.0
2차전지	-4.2	1.6	20.0	1.0	적지	적지	-3.4	2.5	흑전	1248.7	2.4
디스플레이	-3.4	-10.6	1.8	-6.3	279.9	흑전	-2.1	흑전	흑전	8.5	0.9
통신서비스	-0.7	-0.8	-5.5	1.7	흑전	흑전	3.3	33.0	31.7	11.1	0.8
유틸리티	2.2	11.2	21.9	-4.0	13.0	37.9	0.4	50.3	102.4	4.3	0.7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